어린이 책꽂이

▲봄이오면=한자영씨가 쓰고 그린 책. 따사롭고 한가로운 봄의 풍경을 화사한 색감의 그림으로 전한다. 봄 햇살에 취해 '꾸벅꾸벅' 조는 엄마와 아기, 뜰에서 놀다 '사르르르' 잠든 아이와 할아버지, '콜콜쿨쿨' 조는 오리 가족과 무당벌레 등 마치 누가 와서 '잠 가루'를 뿌린 듯 나른한 봄 풍경을 담았다. 〈사계절·9천500원〉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 어둠도, 도깨비도, 호랑이도 아니다. 바로 부모의 부부 싸움이다. 책은 부모의 돌발적인 싸움으로 당혹해하던 여섯 살짜리 꼬마 톰이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가끔은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담았다. 〈경독·9천원〉

▲오렌지 소스=일본 작가 우오즈미 나오코의 코끝 찡한 아동소설. 전학을 온 유리는 잘난 척하는 아이로 오해를 받아 반에서 따돌림 당한다. 미사키는 유리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유리와 친구가 되고 싶다. 하지만 다른 아이의 시선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크레용하우스·7천500원〉

▲신나고 즐거운 생태체험 이야기=주말농장에서 여러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얻게되는 자연이 주는 생활의 지혜와 느낌을 일기형식으로 풀어썼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채소들의 이름부터 그 채소들이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도서출판 박물관·8천900원〉

▲얼굴이 빨개졌다=작가 이상교씨의 두번째 동화집. 외톨이 시우에게 어느날 멋진 '오빠'가 나타난다. 시우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악수를 청하자 금세 얼굴이 빨개져서는 꺾어들고 온 복숭아 꽃가지를 놓아두고 달아나는 시우를 상상하면 어린 날 한번쯤 겪었을 법한 아련한 풋사랑이 떠오른다. 〈국민서관· 8천500원〉

▲수돗물이 뚝!=롬이의 신기한 주전자 속 여행을 통해 물에 관한 5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생활에서 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물은 지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을 왜 아껴 써야 하는지, 맑은 물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타지 동화로 엮었다. 〈파란자전거·8천900원〉

▲우리말 우리글=현직 교사들이 국정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한계를 뛰어넘고자 만든 초등학교 1학년용 대안 국어교과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진 국정교과서와는 달리 네 분야를 하나로 통합해 아이들의 지식발달에 맞게 내용을 새롭게 구성했다. 〈나라말아이들·1만5천원〉

▲꿈통장 행복통장=여행은 슈퍼맨이 되는 것. 남희와 용현이의 지구를 한바퀴 도는 '지구마을' 여행을 통해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 '작은 아이의 세계여행'이라는 제목 이야기를 다시 꾸민 것이다. 〈영림카디널·9천원〉

예술가에게 배우는 창조적 삶의 기술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에릭 부스 지음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단지 어른이 되면서 그 자질을 잃어버릴 뿐이다"라는 피카소의 말처럼 예술이란 몇몇 천재들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행동에 몰입하여 쾌감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연극배우이자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예술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릭 부스가 쓴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은 저자가 예술가들에게서 찾은 창조적 삶의 기술을 독자에게 안내하는 일종의 '인생 안내서'이다.

저자는 "예술이라는 단어는 본래 명사가 아니라 '짜 맞추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원상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위대한 예술가들의 창조행위 과정을 밝혀내 이를 일상에 적용하면 평범한 삶을 위대한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열망, 관찰, 비유, 문제의 재구성, 적극적인 참여 등 예술 걸작을 만들어내는 5가지를 기술을 탐구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가 창조성의 원천으로 가장 먼저 제시한 '열망'은 새로운 것에 반응해 그 안에 담긴 진실한 가치를 찾아내어 세상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힘이다. 예술작품은 낯선 사물 앞에서 발동하는 호기심과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강렬한 욕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앞과 뒤를 모두 살피고, 끌리는 대로 끌려가며 관찰하되 섣부른 판단이나 해석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관찰하면 평범한 것들에서 비범함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카프카의 말처럼 "식탁에 앉아 귀를 열고 기다리면 세상이 기꺼이 당신에게 다가와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인간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킬수 있다. 빈센트 반 고흐 작 '아를의 반 고흐의 방'

저자는 "예술가들은 상징, 은유, 상상력을 통해 사물들 간의 고리를 찾아낸다"며 끊임없는 '상상'과 '비유'야말로 세계를 재구성하는 예술가의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밝힌다.

또한 예술가들이 좋은 해답을 얻을 때까지 매번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의 재구성' 과정은 그 자체가 '창조행위'라고 설명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열린마음으로 끝없이 의문을 제시하라고 조언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놀이에 빠진 어린아이의 진지함을 터득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근접할 수 있다"고 했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인용, 최선을 다해 경험하고 최선을 다해 즐겨라고 강조한다.

책은 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이 우리의 삶 자체임을 일깨워준다. '일상=예술하기'를 '세상 만들기', '세상 탐구하기', '세상 읽기' 세 과정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경이로움과 호기심으로 세상을 대할 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매혹적인 것들로 빛 날 수 있는가를 통찰력 있게 보여준다. 〈에코의서재·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표작가 21명의 솔직한 삶

나는 오직 글 쓰고 …

원재훈 지음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독자들은 그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시인 원재훈이 펴낸 '나는 오직 글 쓰고 책 읽는 동안만 행복했다'는 우리 시대 대표작가 21명의 삶을 들여다본 책이다.

책에 등장하는 이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라는 신분덕에 저자는 문인들과 대화를 통해 깊은 이야기를 끌어냈다. 더불어 뛰어난 필력을 겸한 터라 작가 한명 한명과의 모습과 이야기는 잘 짜여진 산문으로 완성됐다.

저자는 진득한 인터뷰를 통해, 특히 그들이 펴낸 다양한 책을 오랫동안 섭렵한 내공을 통해 그들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 작가가 되기 까지의 , 작품 이야기, 글쓰기의 행복과 고뇌, 그리고 사랑과 이별 등 일상까지도 잘 포착해냈다.

동인문학상 등 최근 대부분의 문학상을 휩쓴 소설가 김연수는 고향 친구 문태준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완벽주의자 노시인 정현종,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는 공지영을 만날 수 있고 전경린·구효서·김선우·김인숙·김형경·성석제·윤후명·윤대녕·김용택·문태준·박상우·신경숙·정호승까지 현재 가장 주목받는 문인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예담·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랑의 6가지 '빛과 그림자'

다른 남자

베른 하르트 슐링크 지음

'더 리더-책 읽어주는 남자'의 작가 베른 하르트 슐링크는 작품마다 각 캐릭터의 면면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탁월한 이야기 구성력과 인간에 대한 도덕적 암시를 내포하면서도 간결한 문체로 정평이 나 있다. 그의 중·단편 모음집 '다른 남자'가 나왔다.

책에는 부자, 부부, 친구 등 우리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빛과 그림자'가 매우 간결하고 치밀한 어조로 그려져 있다. 연민, 어긋남, 질투, 이기적인 열정, 근원적인 그리움, 낯설음 등 슐링크의 프리즘에 포착된 사랑의 여섯 가지 빛과 그림자를 한데 엮었다.

죽은 아내가 숨겨두었던 애인이 아내 앞으로 보낸 편지를 받고 질투심을 느끼고, 아내의 옛 애인을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의 과거를 깨달아가는 남자를 절묘하게 그려내 일상적 삶의 허구성을 짚어낸 표제작 '다른 남자'와 2차 대전 중 아버지가 유대인들에게 범한 죄를 알게 된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독일의 아버지 세대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연민의 정을 나타낸 '소녀와 도마뱀' 등 6편이 실렸다.

이번 역시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환원, 관계와 소통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슐링크 만의 탁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레·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일상이 가져다 준 행복의 의미

지구에서 웃으면서 …

로버트 풀검 지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의 저자 로버트 풀검이 2007년에 낸 에세이집 '지구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87가지 방법'이 번역돼 나왔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과 유타주, 그리스의 크레타섬을 오가며 사는 저자가 그곳에서 겪은 소소한 사건들 속에서 깨달은 지혜와 일상의 행복을 이야기한 87편의 에세이를 담고 있다.

책에는 풀검이 무엇을 했고,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풀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밝히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여행을 하면서 뜻밖의 것에서 기쁨을 맛보았다. 큰 토끼로 변장하고 손자들과 할로윈 파티에 가고, 11월 중순에 꽃이 활짝 핀 수선화를 만나고,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상상을 하고, 사막에서 신비한 밤의 소리를 듣고, 밤을 새워가며 그리스의 부활절 축제에 참가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잊지 못할 우정을 맺기도 한다.

저자는 "다양한 직업을 거치고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겪은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 일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며 매일 매일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찾고 얻었다"고 쓰고 있다. 〈랜덤하우스·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국민법률경매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광주, 전남지역 경매

•062)364-8700 •010-4608-3700
경·공매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강 영 희

아파트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	감정가	최저가
서구	금호동	호반리젠시빌	112	1억4천	9천8백
	금호동	대주파크빌	82	9천8백	6천7백2십
	금호동	한국	89	8천5백	5천9백6십
	금호동	금호시영	69	5천6백	3천9백2십
	금호동	남양파크	139	1억8천	1억2천6백
	금호동	풍원팰리스	112	1억5천5백	1억8백5십
	내방동	내방주공	56	6천5백	4천5백5십
	치평동	대우금호	79	8천8백	6천1백
	마륵동	희망가	105	1억9천	1억3천3백
	쌍촌동	성우행복한	112	1억7천	1억1천8백
	쌍촌동	부건빛고을	109	1억3천5백	9천4백5십
	유촌동	호반리젠시빌	112	1억4천5백	1억1백5십
	유촌동	호반리젠시빌	112	1억4천	9천8백
	치평동	해광한신	79	8천1백	5천6백7십
	치평동	종동	129	1억9천	1억3천3백
	풍암동	대주파크빌	152	1억8천	1억2천6백
	화정동	퍽키엄주	85	6천	4천2백만
	화정동	삼익아파트	139	1억4천	7천8백4십
	금호동	도시공사	62	8천2백	6천6백5십
광산구	송정동	은세계아이조흥	109	1억3천2백	9천2백4십
	우산동	시영1단지	69	4천8백	3천2백
	운남동	운남주공	105	9천5백	6천6백5십
	운남동	운남주공	53	4천8백	3천3백6십
	월곡동	금호타운	89	7천5백	4천2백
	월곡동	금호타운	102	9천5백	6천3백
	운남동	운남주공	85	6천3백	4천4백1십
남구	진월동	한국아델리움	122	2억4천	1억9천2백
	봉선동	라인하이츠	109	9천5백	6천6백5십
	주월동	영무예다음	129	1억5천5백	1억5백
	진월동	삼익세라믹	109	1억2천	8천4백
	송하동	삼익	79	8천2백	4천3백4십
	봉선동	금호타운	105	1억3천	9천1백
	봉선동	도아	72	5천5백	3천8백
북구	두암동	현대	188	2억1천	1억4천7백
	문필동	푸른마을주공	79	7천	4천9백
	일곡동	쌍용	122	1억4천	9천8백
	우산동	현대	182	1억6천	8천9백
	일곡동	대림	66	6천	4천2백
	용봉동	현대	105	1억1천5백	8천5십
	문흥동	대주	66	4천2백	2천9백
화순군	화순읍	공간	109	6천1백	4천2백
해남군	해남읍	하늘연가		1억5천	1억5백
	송지면	금명	66	3천	1천3백
장성군	황룡면	해주하이츠	105	5천	3천5백
나주시	송월동	송월주공	66	4천	2천8백
영광군	영광읍	국제아파트	79	5천	3천6백

근린주택 /근린상가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	감정가	최저가
북구	용봉동	용봉빌딩	233	8억5천	2억3천2백
	각화동	3층상가주택	130/220	1억6천3백	9천1백
	두암동	2층상가주택	148/169	1억1천8백	6천6백
	동림동	아파트상가	603	4억5천	8천2백
	연제동	아파트상가	37	8천9백	8천2백
서구	양동	4층상가주택	201/348	2억9천8백	1억3천2백
	쌍촌동	금호베어스타운	130	1억7천4백	1억2천1백
	치평동	월계수타운	125	1억5천8백	8천8백
동구	계림동	금호계림주상복	47	2억5백	7천3백
남구	월산동	3층상가주택	348/880	4억6천3백	1억6천6백
	주월동	2층상가주택	143/138	2억3천8백	1억3천3백

원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송정동	2층상가	423/578	5억1천6백	3억6천1백
	송정동	원룸	423/578	5억1천6백	3억6천
서구	치평동	대우디오빌	79	1억2천5백	7천
	치평동	아트빌	56	6천9백	4천8백
	월산동	동강오피스텔	56	4천7백	3천2백9십
	금호동	로이스빌	130	3억3천	2억3천1백
	화정동	원룸	303/446	3억5천	1억6천
동구	학동	원룸	271/486	4억3천2백	3억3백

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북구	오치동	134/95	7천3백5십	4천1백
	각화동	278/209	1억6천4백	9천1백
	풍향동	118/92	6천5백9십	4천6백
	두암동	514/335	3억4천5백	2억4천1백
	우산동	159/140	1억2백	5천7백
	홍전동	397/94	1억6천5백	1억1천5백
	신안동	231/134	1억1천9백	5천3백
남구	송촌동	264/94	3천2백3십	1천8백
	월산동	145/124	8천1백	3천6백
	대지동	367/85	8천6백9십	6천8십
	양림동	179/117	1억	4천4백8십
	백운동	149/140	8천7백8십	4천9백
서구	내방동	285/150	1억6천8백	6천
	농성동	707/65	2억8천9백	1억6천2백
	벽진동	112/116	8천2백7십	2천9백6십
광산구	광산동	849/196	1억7천1백	1억2천
	소촌동	800/203	2억1천4백	1억4천9백
	쌍촌동	169/209	1억7천7백	7천9백7십
	임곡동	532/131	6천2백8십	4천3백9십
	송학동	374/119	3천1백	1천7백
	삼거동	810/269	1억	5천6백
동구	서석동	142/135	1억1천	7천8백
	산수동	145/139	8천4백	3천7백
	월남동	558/156	1억9천1백	1억3천4백
함평군	학교면	660/183	5천1백	1천8백
	신광면	426/156	3천2백	1천1백
	월야면	1392/316	1억4천6백	8천1백8십
나주시	송월동	211/134	9천6백	5천4백
	평산동	311/93	2천4백	1천3백8십
	송월동	211/134	9천6백8십	5천4백2십
	산포면	231/68	3천	2천1백
	평산동	311/98	2천4백	1천3백
	송월동	204/105	9천2백	5천1백
	남평읍	289/79	3천5백	2천5백
	봉황면	414/135	5천2백	3천6백

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화순군	청풍면	685/172	6천4백	2천3백
	동면	446/94	5천7백	4천3십
	도곡면	205/86	1천5백	1천9십
	춘양면	826/230	3천5백	2천4백6십
	동복면	628/96	4천1백	1천8백5십
영광군	대마면	1101/165	2천7백	1천9백
	법성면	841/138	2천8백	2천
	영광읍	519/160	2억7천4백	1억5천3백
장성군	황룡면	261/114	4천6백2십	3천2백3십
	서삼면	1474/358	1억1천2백	7천8백
담양군	담양읍	400/137	6천	3천3백7십
	대전면	651/103	8천8백	6천2백
	담양읍	145/70	3천8백	2천7백
해남군	산이면	466/110	2천2백	1천5백
무인군	청계면	674/145	3천1백	1천7백
	해제면	780/73	3천2백	2천3백
	일로읍	564/125	6천5백	3천6백
영암군	미암면	486/258	1억2백	3천6백
	신북면	398/284	1억1천2백	4천

토지(농지 /답 /임야 /대지)

지역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요기동	농지	496	2천5백	1천1백
	서창동	임야	470	5천5백	3천8백
	송학동	농지	192	1천2백	9백
	송치동	농지	1680	1억8천2백	1억2천7백
	신창동	대지	1074	2억7천9백	1억5천6백
	쌍암동	대지	407	4억4천7백	3억1천3백
	연산동	농지	448	7백	5백
서구	농성동	대지	294	3억8천	2억1천3백
북구	본촌동	대지	279	1억2천5백	8천7백8십
화순군	동복면	농지	3673	2천9백6십	2천
	남면	농지	2713	3천5백	2천4백8십
	춘양면	임야	21859	7천9백	5천5백
담양군	고서면	농지	981	1천4백	1천
	대덕면	농지	1003	9천3백	
	수북면	농지	2602	4천9백	
	월산면	대지	506	1천	7백
	창평면	임야	2347	3천9백	
	용면	임야	16820	8천	5천6백
	대전면	농지	1117	2천2백	1천5백
무인군	청계면	농지	1954	8천7백9십	3천1백
	망운면	농지	1588	3천1백	2천1백
	운남면	농지	1623	2천4백	1천7백
	삼향면	농지	1104	3천9백	2천7백
	몽탄면	농지	2575	2천3백	1천6백
영광군	영광읍	농지	3830	2천6백	1천8백
	홍농읍	잡종지	1649	9천8백	5천5백
	홍농읍	농지	2142	1천3백	9백3십
	대마면	농지	2958	1천7백	1천4백
	법성면	농지	1278	1천2백5십	7백
장성군	삼계면	농지	2056	8천2백	5천7백
	황룡면	농지	4373	9천6백	6천7백7십
	남면	농지	3173	1억4백	7천3백

토지(농지 /답 /임야 /대지)

지역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함평군	월야면	대지	717	6백	3백
	함평읍	농지	2588	2천	1천4백
	월야면	대지	1332	1천1백	5백
	손불면	농지	12783	8천8백8십	6천2백
	손불면	농지	2108	1천5백	1천
	신광면	농지	1815	1천3백	9백2십
	학교면	농지	2644	1천9백	8백7십
나주시	봉황면	대지	2508	8천7백7십	4천9백
	남평읍	농지	1826	6천 5백	
	세지면	농지	1503	1천5백	6백7십
	남평읍	농지	1586	1천9백	1천3백
	왕곡면	농지	3609	3천9백6십	2천7백7십
영암군	영암읍	잡종지	1376	2억5천	1억7천6백
해남군	황산면	농지	2414	1천6백	1천3백

근린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남구	지석동	499/704	5억5백	2억2천6백
	주월동	716/2661	28억	20억
북구	중흥동	333/1063	6억1천	2억7천5백
	오치동	929/764	7억4천9백	2억6천8백
	중흥동	546/1606	12억6천	7억9백

농가전원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담양군	봉산면	1263/748	1억5천	5천3백8십
나주시	문평면	2440/1356	2억4천5백	5천6백
무인군	현경면	3188/1304	1억8천	8천1백
	엄다면	923/225	5천2백	3천6백
함평군	함평읍	4202/986	1억4천5백	6천5백
해남군	옥천면	3276/931	1억3천4백	7천5백
화순군	한천면	4644/1390	2억6천2백	1억8천3백
	한천면	2959/697	9천9백	5천1백

공장(창고)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용동	1321/877	9억7천	5억4천2백
	장덕동	4958/4808	31억2천	20억3천
남구	송하동	3431/1497	11억8천	8억2천7백
장성군	진원면	1144/838	7억4천	5억9천8백
함평군	학교면	2225/1257	3억5천	1억9천7백
함평군	학교면	2079/456	4억4천	2억4천6백
나주시	봉황면	6062/2364	7억8천4백	5억4천9백
담양군	금성면	5066/916	6억7천8백	4억7천4백
	월산면	411/1808	4억3천	3억5백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시 최저금리 대출알선(잔금부족시)-명도(이사)